政策協議會시리즈18
1983. 12

開發途上國間의 農村·農業開發 協力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개발도상국간의 經濟 및 技術協力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要請되는 때에 開發途上國間의 農業과 農村開發協力方案을 論議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983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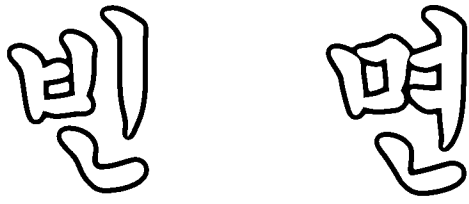
당 연구원과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AARRO)와 共同主管으로 열린 본 회의에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 16개 開發途上國과 FAO 등에서 참석한 學者, 專門家, 그리고 政府關係官 등 32名이 農村指導事業 모델開發과 함께 各國別로 農業과 農村開發을 위한 國際協力의 經驗을 交換하였으며 상호 協力가능분야의 확인과 이의 促進을 위한 建議文 등을 作成하였다.

農業과 農村開發을 위한 開途國間의 國際協力은 비단 經濟協力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제3世界를 向한 非同盟外交强化를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하다. 農業과 農村開發이 政策的 最優先課題인 아시아·아프리카 開發途上國의 참석자들은 경이적인 經濟成長과 잘 다듬어진 農村모습 그리고 부지런한 韓國人像에 감명을 표하고 繁榮된 한국의 앞날을 豫見하며 한결같이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의 移轉과 互惠的인 經濟協力强化를 韓國에 要請하고 있었다.

이 小冊子는 會議의 槪要와 本會議에서 다루어진 그룹討議를 中心으로 이들의 建議文과 이 地域國家間의 國際協力 可能分野 및 對韓協力 要請分野 등을 실었다. 本會議에서 發表된 招請論文은 간추린 要點만을 실었으며 全文은 당 연구원의 季刊 農村經濟(제6권 4호)와 英文저널(Vol. VI.-Ⅱ)에 게재하였다. 會議結果를 총정리한 英文報告書는 아시아·아프리카農村再建機構와 共同으로 추후 發刊할 計劃임을 밝혀둔다.

1983. 12.

韓國農村經濟硏究院長 金 甫 炫



目　　次

머 리 말

會議開催의 意義 및 經過

1. 會議開催 意義 …… 1
2. 會議開催 經過 …… 2
3. 會議參加國 …… 4
4. 日程別 會議槪要 …… 5

農村·農業發展을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 (主題發表 및 討議(I))

1. 招請論文①／農業·農村開發을 위한 開途國間의 協力强化…… 8
2. 招請論文②／農村開發에 있어서의 國際協力 分野 …… 10
3. 그룹討議 槪要 …… 12
4. 그룹討議 內容 …… 13

農村指導事業 모델 (主題發表 및 討議(II))

1. 招請論文③／農業·農村開發을 위한 農村指導事業의 役割과 效果와 戰略 …… 19
2. 招請論文④／農村指導 및 農民과의 意思傳達 모형 …… 20
3. 그룹討議 槪要 …… 22
4. 그룹討議 內容 …… 23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增進 可能分野

1. 國家間 協力 可能分野…… 30
2. 韓國에 協力을 要請하는 分野 …… 37

建　　議 …… 43

附　　錄 …… 47

1．開會辭 …… 47

2．歡迎辭 …… 48

3．祝辭 …… 51

4．會議日程 …… 54

5．參加國 및 參加者 …… 61

會議開催의 意義 및 經過

1. 會議開催 意義

開發途上國家의 農村 및 農業開發 協力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農村開發協力 國際會議(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가 農水産部 후원으로 韓國農村經濟硏究院과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AARRO)와의 공동 주최로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8개국과 아프리카 8개국 그리고 FAO에서 참석한 고위직 정부 관료와 학자 등 32명이 모인 가운데 1983. 10. 12～10.20 (9일간) 까지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본 國際會議는 1978년 開發途上國間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UN 會議(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언)이후 새로운 國際經濟秩序(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의 理想 실현을 위하여 開發途上國의 효과적인 開發戰略의 하나로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開發途上國間의 經濟 및 技術協力" (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 ECDC ;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CDC)에 관하여 AARRO會員國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이 모여 농업 및 農村開發을 위하여 개발도상국간의 협력 가능분야와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는 데 그 開催 意義가 있었다.

本 會議에는 2개의 主題가 設定되었다. 하나는 農村指導事業 모델 개

발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協力方案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 地域國家의 대부분이 農業國家이고 國家經濟가 크게 農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農村住民들은 기아와 질병, 문맹 등 고질적인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에게 農業과 農村開發은 이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회의의 2개의 主題 즉 農業生産性을 增大시키고 農村住民의 삶의 質的向上을 목표로 하는 農村指導事業과 地域間, 國家間의 均衡的 發展과 이러한 發展努力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정보의 교환, 專門人力의 交換 및 訓練, 共同研究事業의 推進, 適正技術의 開發 및 移轉과 適用 등에 관한 開途國間의 國際協力事業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가나, 스리랑카 등 국가에서는 이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 次官級 고위직을 이 회의에 참여시켰고 특히 아프리카 大陸의 정치·경제면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집트가 韓國과 국교가 없으면서도 國際協力 分野의 高位職을 참여시킨 것은 이 회의가 갖는 意義를 대변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本會議가 갖는 보다 중요한 成果는 점증하고 있는 第3世界 및 非同盟國家들과의 經濟協力增進 그리고 全斗煥 大統領각하의 아시아 아프리카 순방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地域國家들과 구체적인 協力分野 및 協力方法을 協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會議開催 經過

AARRO 사무국은 1983년 1월 AARRO의 82~84사업계획의 하나로 선정된 農村指導事業모델에 관한 국제 워크샵을 韓國 정부에서 주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측 공동개최자로 결정된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同研究院의 專門性과 機能을 고려하여 워크샵 주제로 農村 및 農業開發을 위한 開途國間의 國際協力을 이번 워크샵 주제로 선택할 것을

AARRO측에 제의하였으며 결국 양기관 합의하에 2개의 주제 즉 農村指導事業모델과 農村 및 農業開發을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을 本會議 주제로 선택하였다. 1983년 6월 20~24일까지 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한한 AARRO측 기술담당관 말리크(R.P.S. Malik)와 당연구원간에 회의개최에 따른 "理解覺書"가 작성되었다. 本 覺書는 회의 名稱, 회의 主題, 회의 期間, 초청대상자 및 참석자선정, 발표論文 작성, 재정분담, 회의공식언어 사용 등을 담고 있으며 韓國農村經濟硏究院 金甫炫 院長과 AARRO事務總長 민하스(Dr. B.S.Minhas)를 本會議 共同開催者로결정하였다.

한편 본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金榮鎭 副院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院內 세미나개최準備委員會를 구성하였고, AARRO와의 대화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國內워크샵組織委員會를 구성하고 委員長에 崔洋夫 首席硏究員, 委員에 李壽寧 硏究企劃室長, 農水產部 國際協力課 李昌雨 事務官(人事移動으로 李昌雨事務官은 서성배事務官으로 대체되었음)을 위촉하였다.

3. 會議參加國

本 會議에는 아시아에서 8개국, 아프리카에서 8개국이 참석하였으며 FAO에서는 옵저버로 참석하였다. 당초 본회의 招請對象者는 AARRO 會員國으로 한정하였으나, 韓國農村經濟硏究院이 우리나라와 중요한 협력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나이제리아, 세네갈, 가봉 등 국가와 주요 국제기구로서 FAO, ESCAP, ADB 등을 추가로 초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스리랑카는 스리랑카 내무성 관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회의 參席을 希望하였으며 AARRO와의 協議로 參席하게 되었다.

(1) 아시아 지역 참가국 : 한국, 자유중국, 필리핀, 말레지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요르단

(2) 아프리카 지역 참가국 : 에짚트, 가나, 나이제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모로코, 모리셔스, 케냐

(3) 옵저버 참가기관 : FAO

4. 日程別 會議概要

本 會議는 1983년 10월 12～20일(9일간)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컨벤션 센타에서 개최되었다. 日程別 主要事項은 表1과 같다.

表1 會議日程 概要

일 시	일 정
10월 11일	參加者 입국 및 등록
10월 12일 오 전	(1) 개회식 • 개회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金甫炫 • 환영사 : AARRO Mr. R.P.S.Malik • 축 사 : AARRO 議長겸 농수산부장관 朴鍾汶 (2) 농수산부장관 초대 오찬
오 후	(1) 주제 I에 대한 초청논문 발표 및 토의 발표자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王仁權교수 印度 농업연구위원회 K.N.싱 박사 (2)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자유중국, 인도, 태국)
10월 13일 오 전	(1) 주제 I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라이베리아, 가나, 케냐, 모리셔스, 한국, 필리핀)
오 후	(1) 주제 I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계속(시에라레온, 모로코, 스리랑카, 나이제리아, 에짚트, 말레지아, 요르단) (2) 그룹토의를 위한 주제설정 회의

일 시	일 정
저 녁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초청 만찬 (2) 주제Ⅰ에 관한 토의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 회의
10월 14일	
오 전	(1) 주제Ⅰ에 관한 그룹토의
오 후	(1)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방문
저 녁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초대 가든파티 참석
10월 15일	
오 전	(1) 농업진흥공사 방문 (2) 농촌진흥청 방문 (3) 농촌진흥청장 초대 오찬 참석
오 후	(1) 새마을 부락 방문(경기도 송탄시 도원동 칠원마을)
저 녁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事務總長 초대만찬 참석
10월 16일	민속촌 방문 및 서울 시내 관광
10월 17일	
오 전	(1) 주제Ⅱ에 관한 초청논문 발표 및 토의 발표자 :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金東熙교수 印度 델리 대학교 S.D. 텐둘카르 교수 (2)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자유중국, 필리핀, 말레지아)
오 후	(1)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계속 (시에라레온, 가나, 케냐, 인도, 한국, 태국)
저 녁	시내 관광
10월 18일	
오 전	(1)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계속 (스리랑카, 라이베리아, 모로코, 에짚트, 나이제리아, 모리셔스, 요르단)
오 후	(1)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국가간에 필요한 국제협력분야 및 협력 형태 파악 (2) 주제Ⅱ에 관한 그룹토의 주제 설정

일 시	일 정
	(3) 주제 Ⅱ에 관한 그룹토의 결과 발표
저 녁	AARRO 극동지역 사무소 대표 초대 만찬 참석
10월 19일	
오 전	(1) 주제 Ⅱ에 관한 그룹토의
오 후	자 유 시 간
저 녁	AARRO 사무총장 초대 만찬 참석
10월 20일	
오 전	(1) 주제 Ⅱ에 관한 그룹토의 결과 발표
오 후	(1) 회의결과 및 건의문 채택
	(2) 폐 회 식

主題發表 및 討議(I)

農村·農業發展을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

招請論文이 主題別로 2編씩 發表되었으며 主題別로 各國의 事例發表가 있었다. 다음은 主題別 招請論文의 要約(全文은 農村經濟 제6권 제4호 參照)과 그룹토의 내용이다.

招請論文 要約①

1.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開途國間의 協力強化

金 東 熙
단국대학교 교수

오늘날 세계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開途國(南)에 살고 있으며 先進國(北)의 經濟力은 이미 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의 인구가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新生國을 포함한 모든 개도국들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工業化를 서둘러 왔으며 지금도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적지않은 나라가 좌절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外債累積과 輸出不振으로 말미암아 經濟成長率이 매우 둔화되고 있다. 1973년 석유파동이 있기까지 20년동안 선진국들은 미증유의 호황을 맞이하여 그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다졌다. 한편 남쪽도 그 바람에 득을 보아 경제성장이 비교적 순조로왔던 것이다. 그러나 74년 이후 長期不況에 접어들면서 선

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수입제한, 기술과 資本輸出에 대한 제약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에는 더욱 많은 난관이 가로 놓이게 된 바, 가장 취약한 부문인 농업에 대하여 그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사실 많은 개도국들은 최근까지도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업의 보완적 역할을 경시해 왔다. 북은 남으로부터의 값싼 工産品 및 1차산품의 수입과 기술 및 자본수출에 의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산업조정을 게을리하고 失業 등을 이유로 내세워 개도국들의 외화획득이 길을 좁히고 있는 바 이런 행위는 결국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하며 새로운 世界經濟秩序의 정착에 능동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것이다. 남북간, 그리고 남남간의 경제적 相互依存性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바, 각국은 사고와 행동의 구태를 벗어나 共同利益을 위한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 북의 남에 대한 공식적 開發援助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증가하는 남의 수요에 훨씬 미달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북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GNP의 0.7%의 반에도 못미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개도국의 농촌개발은 바로 공업화를 위한 선행적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北에 의해 對南 공업개발원조도 답보상태이며 또 현지에 맞지 않는 개발모델 도입을 시도하는 등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經濟 및 技術協力」을 과거처럼 남북간의 관계로만 볼 시기는 지났으며 그동안 쌓았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할 때가 온 것이다. 타당한 분야로서는 交易의 확대, 농촌개발에 관한 경험과 지식의 교류, 수출상품의 제값을 받기 위한 장기적 需給調整, 농업·農村工業 및 에너지분야의 연구협력, 그리고 비상식량비축을 위한 지역적 공동계획 추진 등 많은 분야를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와 소극적 이해에 구애받지 말고 상호이익을 위하여 과감히 실천하려는 의지를 굳게 갖는 일이라 할 것이다.

招請論文 要約②

2. 農村開發에 있어서의 國際協力 分野

수레쉬 D. 덴둘카르
印度 델리대학교 교수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개도국간의 相互協力은 이들국가들이 처한 농촌문제와 이에대한 해결방안 및 실천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농촌개발은 농촌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효과에 대한 균형적인 분배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농촌개발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은 농촌자원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經濟構造와 制度들의 변화를 말하며, 사회적 측면은 농촌지역의 개발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리킨다.

농촌개발의 경제적 측면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농촌자원의 효과적 이용 및 생산성 제고방안,

둘째, 빈곤층의 경제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세째, 위생, 보건 등의 公共서어비스 부문을 통한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방안 등이다.

농촌자원의 효과적 이용 및 生產性제고 방안에 대한 國際協力 분야로는

(1) 농업부문의 기술분야 : 생산성이 높은 품종개량과 개량된 품종의 다양한 기후와 토양조건에 대한 적응실험, 신품종 재배에 따른 각종 기술수준, 생산재의 적정수준과 농촌 하부구조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분야 등.

(2) 농촌의 非農業部門 분야 : 농촌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품생산이나 서어비스 부문에서의 기술개발.

(3) 에너지 資源의 이용기술 분야 : 새로운 에너지자원 및 再生資源의 이용기술, 에너지 代替에 따른 社會的 損益分析 등.

(4) 技術擴散을 위한 制度분야 : 신용, 판매, 구매조합의 활동경험, 농촌하부구조에 대한 地域開發 프로그램분야, 토지개혁 등 개발효과 확산을 위한 諸 制度의 변화.

(5) 生態學的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지역개발분야 : 사막지대나 한발 상습지역에 대한 토지와 水資源에 대한 이용방안 등.

(6) 技術革新에 대한 농촌지도사업 분야 :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기술보급을 위한 전달체계 등이 있다.

貧困層의 경제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國際協力 분야로는

(1) 自家生産 증진을 위한 정부 주도 프로그램분야 : 개발프로그램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장치를 통해 들어가므로 빈곤층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빈곤층을 개발대상체로 한정하여 이들의 자가생산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開發과 실천에 따른 成功談과 失敗談을 통한 교훈,

(2) 임금고용에 대한 정부 주도 프로그램 분야 :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농가들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

(3) 빈곤층을 위한 資源社會團體들의 프로그램 : 정부주도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아주거나, 주민들과 접촉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단체들의 역할 등이 있다.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국제협력분야로는

(1) 公共部門 서어비스의 기술과 전달체계 분야

(2) 공공서어비스간의 효과적인 조직방안 등이 있다.

끝으로 농촌개발의 사회적 측면에서 國際協力은 기술변화에 따른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社會制度, 사회구조 및 價値觀의 변화에 대한 경험교환에 있다 하겠다.

3. 그룹討議 概要

그룹토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主題設定을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設定된 主題에 따라 會議參席者 全員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를 가졌다.

가. 제1그룹

— 토의 參席者 : Dr. H. Dawood
Mr. A. R. Mohd Nor, Mr. D. R. Nunez, Mr. B. B. Sharma, Dr. R. N. Tripathy, Mr. A. J. Kiawu, Mr. I. R. Kiiru, Mr. A. R. Soyfoo, 金東熙, 王仁槿, 盧健吉, 최문희, 趙在衍, 崔洋夫

— 討議 主題

- 開途國間의 交易增進에 관련된 문제
-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에 있어서 技術의 開發, 移轉, 適用에 관한 문제
- 生產性 增大에 따른 利益擴散을 위한 새로운 經濟體制에 관한 문제

나. 제2그룹

— 토의 참석자 : S. D. Tendulkar, Mr. J. K. Amoaku, Mr. C. Pongsroypech, Mr. S. O. L. Amadi-Nna, Mr. A. A. Qader, Mr. C. Gamage, Mr. L. M. Feika, Mr. M. Mohamed, Dr. K. N. Singh, Mr. C. Y. Liu 董烈模, 金正龍, 姜奉淳, Mr. R. P. S. Malik.

— 토의主題

- 生態的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地域開發 計劃

- 貧困層에 대한 事業計劃
- 教育, 保健, 家族計劃 등 社會的 서비스의 效果的 침투를 위한 비용절감技術 및 傳達體系의 開發
- 技術變化의 성장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社會的 制度,社會構造, 態度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경험들.

4. 그룹討議 內容

가. 開途國間의 交易增進에 관한 問題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國際收支 문제를 고려할 때 아시아·아프리카 地域 국가들의 교역 증대의 필요성은 당연하고도 강조되어야 할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AARRO 웍크샵은 이러한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고 보며 이러한 일들은 UNCTAD와 그 상임위원회의 아시아-아프리카 地域專門家들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러나 본 회의는 개도국간의 교역이야 말로 國際協力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개발을 加速化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본 회의는 개도국간의 교역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들을 UNCTAD와 77그룹, 그리고 UNCTAD안에 있는 아프리칸 그룹과 아시안 그룹들이 할 수 있도록 AARRO가 要請할 것을 건의하였다.

나. 農業과 非農業部門에 있어서 技術의 開發·移轉·適用에 관한 問題

생산성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기술의 변화는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경제발전과정의 중요한 核心要素라고 인식되어 왔다. 더우기 농업과 농촌부문에 있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의 制限된 役割이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 개발도상국간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으로 지적되었다.

본 회의는 국가별로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농업과 비농업 부문에 있

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전 그리고 기술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기관들이 있으나 이러한 시험 연구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AARRO 회원국들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거나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試驗研究 結果들을 회원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講究되기를 제안하며 그러할 경우 이것은 개도국간의 국제협력 증진에 決定的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회의는 이러한 일들에는 다음과 같은 制約點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技術의 移轉과 適用을 擴大하는데 소요되는 財源과 制度的 裝置가 미비하다.

(2) 개도국의 기술개발은 선진국의 빠른 技術開發速度를 따라 갈 수 없으며 따라서 開發意慾이 저지되거나 대개의 경우 그들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외국기술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3) 기술의 實行段階에서 회원국간의 대화의 장벽

끝으로 본 회의는 기술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情報의 蒐集, 가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특별기구를 AARRO에 설치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본 회의는 회원국들간에 多邊的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별 상호협력의 폭을 증진시키는 일에 AARRO의 役割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다. 生産性 增大의 利益擴散을 위한 새로운 經濟體制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成長主導 技術을 널리 普及시키고 따라서 經濟成長의 利益을 널리 擴散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協同組合, 農民團體, 耕地整理 등 각종 制度의 革新 및 새로운 사업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의는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기술의 개발, 이전 그리고 이들의 적용이라는 관점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회의는 각종 制度의 革新은 그 사회의 政治 社會的 그리고 文化的인 배경에 알맞아야 된다고 보며 모든 국가의 모든 상황에 適用可能한 모델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 농민조직 등 制度의 革新이 특수

한 여건하에서 무엇이 이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요인인가? 그리고 그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각기 상이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볼 때 회원국들에게 일종의 힌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가치있는 教訓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회의는 經驗의 交換은 각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여건하에서 성공적이고 깊이있는 事例研究의 결과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라. 生態學的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地域開發計劃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사막화와 빈번한 旱魃 그리고 土壤침식 등 공통적인 생태학적 불균형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1) 限界農地에 대한 경작 확대 (2) 循環耕作 (아프리카의 일부 농지가 풍부한 지역) (3) 산림벌채 등 인간의 힘에 의해서도 야기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같은 문제들은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찰되었다. 長期的 對策은 수자원이 발견될 수 있는 곳에서는 灌漑開發과 農業用水管理를, 또는 주민들의 활동을 농업관련활동으로부터의 他分野로 轉換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短期對策으로는 토양에 더 이상 손상을 주지 않고 이용가능한 土壤濕度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作目構成의 개발이다.

長期的인 對策은 旱魃의 빈도와 地表 및 地下水資源탐사에 관한 지리학적 및 기상학적 조사를 필요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기관의 원조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短期對策으로서는 耐旱性 품종의 개발과 습기보존을 위한 영농법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印度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들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인도의 국립토양염분연구소 (NSSC) 와 국제열대준사막지작물연구소 (ICRISAT) 그리고 인도의 건조지 농업조정사업 등의 연구결과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작부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유도하는 문제점에 관심이 모아

졌다. 농민들에 대한 補助金과 정부支援이 강조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인도의 산림정책 경험이 논의되었다. 이 산림정책은 농민들에게 습도 필요량을 극소화하고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종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윤작과 영농방법)의 교환과 전문인력의 교환 등의 국제협력이 건의되었다. 이에 덧붙여서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국가의 財源負擔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로서 이를 위한 地域間 協力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정책수립자들에게 環境的인 문제를 인식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 貧民層에 대한 計劃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 전반적인 成長指向的 計劃들은 성장의 효과를 광범위하게 擴散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이익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경제적·사회적 취약부분을 남겨왔다. 그 결과 경제성장만으로는 貧困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貧民層을 위한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가져오게 했다.

본 회의는 빈민층에 대한 下向式 혹은 政府主導의 計劃들을 논의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빈민가구의 顯在資産 또는 새로운 자산의 개발을 위한 信用聯關計劃, 賃金 雇傭創出을 위한 公共事業計劃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계획들이 지닌 일반적인 비능률이 인정되었다. 본 회의는 빈곤층의 集團共同活動을 통하여 빈곤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民間部門의 底邊 계획들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서 새마을운동의 경험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자유중국과 스리랑카의 유사한 시도가 또한 토의되었다. 본 회의는 이러한 계획들의 效率性을 極大化하기 위해 下向式 計劃들과 底邊의 貧民層의 참여를 결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같은 계획들의 심층사례연구의 국제적인 교환이 국제협력의 제1단계로서 건의되었다. 이같은 국제적 교환은 제2단계로서 지도자와 의식화운동자들을 위한 훈련계획의 교환으로 연장될 수 있었다.

바. 住民의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公共서비스의 提供

이 범주의 계획들은 초등교육, 기술교육, 성인교육, 보건, 위생, 상수도, 영양개선 등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같은 서비스의 보완이 광범하게 인정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개별적 사회 서비스와 일괄된 사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費用節減 기술과 傳達制度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본 회의는 사회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受惠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土着技術과 地域資産의 활용을 위한 조정의 필요성과 이같은 서비스의 地域間 調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道路網과 通信網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다.

保健施設과 家族計劃에 있어 경험의 교환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簡易醫療要員과 土着醫療制度 등에 관한 스리랑카의 경험, 農會의 自願奉仕者에 관한 자유중국의 경험, 가족계획에 관한 한국의 경험, 徒步거리 단위로 900개의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가나의 경험, 지역적으로 만연하는 질병유형에 대한 기초진단 능력과 기본치료를 위한 지방민의 훈련을 추진한 인도의 경험 등이 국제적인 경험교환을 위해 거론되었다.

사. 社會制度·構造 및 態度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인 변화가 기본적으로 潛在的 開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힘이라고 인정되었다. 이러한 잠재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사회제도, 구조 및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사회적 개발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이같은 변화에 內在하고 있는 과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開發途上國家에 있어 社會的 制度와 態度는 經濟的 힘앞에 변화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힘 외에도 사회변화의 과정은 또한 成就動機, 認知要因 등 心理的인 요인에 影響을 받는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본 회의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大衆動員에 관련된 社會工學的 측면을 심층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단체, 교육기관, 정부주도 및 민간자원봉사노력, 현장 방문 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社會變動과정에 관한 심층사례연구의 교환은 국제협력분야에서 기본적 단계로 건의되었다.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단계로서 본 회의는 국제협력의 沮害要因을 검토했다. 財政問題가 공통적인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國際機關의 支援이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웃 국가간의 經濟的 統合이 다른 하나의 可能性으로 제안되었다.

본 회의에서 제안된 건의가 효과적으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은 본국에 돌아가 본 회의에서 제안된 각 제안들을 요약하여 고위층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이 取한 建議文들이 AARRO 事務總長에게 전달될 때에 AARRO事務總長은 이를 遂行할 것을 본 회의는 제안했다.

主題發表 및 討議(Ⅱ)

農村指導事業 모델

招請論文 要約③

1.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農村指導事業의 役割과 效果와 戰略

왕 인 근

서울대 농과대학교수

농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低所得國家의 주요 경제부문이다.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의 압박과 失業이 악순환되고 있고 농업의 저생산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지도자들은 선진국의 工業化만을 주시하고 農業開發을 간과해 왔다.

그러나 국가발전과 공업화의 전제조건으로서 농업발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식량을 증산하고 농촌인구에 대해 생산적인 일터의 제공뿐만 아니라 外貨獲得을 위한 작물의 재배와 공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 및 농촌개발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같은 농업 및 농촌개발은 농민이 실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技術」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革新은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 경제 및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중추적 역할일 뿐만 아니라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農業指導事業이란 이런 관점에서 행동 지향적 농업 및 농촌교육체계,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동체계, 시범적인 방법과 수단을 만들고 과학적 변화를 촉진하는 일,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自由意思결정에 따라 기술

을 변화시키는 일, 농민의 개인적 발전목표와 지방, 지역 및 국가의 목표와의 조화에 따라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지도사업은 국가적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주어지는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각 기구 및 조직의 형태, 지도사업에 부과되는 기본사업 및 지도방법과 수단, 지도관의 자격과 교육 및 훈련과정, 농업지도사업과 관련조직 및 기구와의 긴밀성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업지도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농업 및 농촌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민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農業技術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招請論文 要約④

2. 農村指導 및 農民과의 意思傳達 모형

K. N. 싱

인도농업연구위원회 명예위원

오늘날 農村指導教育은 최신 과학기술의 혁신과 노우하우에 기초해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인도의 농촌지도교육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왔다. 영국의 植民地가 되기 이전의 인도에 있어서 농촌지도교육의 목적은 자족적이며 자립·자율적인 村落社會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촌락회의는 그같은 목적을 성취하는 주요기관이었다. 영국 식민지 시대로부터 인도가 독립하기까지 주로 개인 혹은 공인된 기관들이 開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우발적인 성격이었으며 개발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 혹은 정부기관이 간헐적으로 시도하였다.

농촌지도교육에는 지도체계가 필수적인데 지도체계는 일차적으로 農業

情報의 보급에 책임이 있으며, 각기 營農體制에 따라 농업정보를 종합하기 위해서 농민을 돕고 교육시키는 데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련의 단계는 지도사업을 조직하는 州政府와 中央政府에 의해 그때 그때 조정된다. 국가지도사업은 1953년 시작된 후 이 사업의 조직망은 각각 다른 수준(즉 국가, 주, 구역, 마을 등)에 따라 조직되었다.

지도교육이 일반적으로 農業開發과 특히 農業生産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방법으로 주요역할을 수행해 온 반면에 1950~1951년 약 5천만톤에서 1980년 1억3천만톤까지 농업생산을 돌파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대체적으로 그 책임이 연구자에게 돌아갔다. 지도교육의 역할, 지도전문가 및 지도요원은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단계서 농업생산이 뚜렷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도교육의 성과에 대해 몇가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도교육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이기 위해 농민들을 돕는 기능을 했다. 이러한 문제와 과제는 더욱 까다로울 것이고 指導要員은 보다 빨리 이런 과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지도 또는 보조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사업의 형식과 조직의 구조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다. 즉 과학과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인간생활의 질적 변화와 경제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실제로 효과적인 지도사업을 찾아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이유는 조직상의 문제점, 관할권과 기동성, 전문적 능력, 연구와 지도간, 효과적인 연결의 결여, 사업의 중복, 지도 사업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광범한 의미에서 본 意思소통은 그 성격에 있어 多學問的이며 독자적인 사회, 심리, 경제, 문화, 행정적 수단에 의해 작동한다. 따라서 모든 의사전달자들, 과학기술에 기초해서 농촌대중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농촌의사소통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같은 차원의 중요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영농제도, 농업생태학적 상황, 개발의 기준, 사회심리학적, 경제학적, 의사전달 및 민중의 행동양식에 있어 다양성을 지닌 국가들

에게는 이같은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 화학비료, 농약, 多收穫품종, 與信 등 새로운 농업기술과 경제적인 현대적 投入을 이용한 농업생산의 증가를 위해서 농민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지도방법과 기술 및 의사전달 매체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적용, 그리고 의사전달에 달려 있다. 실제로 개발과 증진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의 핵심부분이 되는 의사전달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수립과 정책입안과 행정관료, 과학과 농촌지도 관계자 등은 그같은 의사전달 전략을 개발과정의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똑같이 중요한 要素로 인정하고 있다. 의사전달의 요체는 농민들이 농업생산계획에 참여하고 현대적인 農業技術의 이익을 나눠 갖는데 필요한 유용한 情報를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3. 그룹討議 概要

가. 제1그룹

- 討議參席者 : Dr. K.N. Singh, Dr.R.N, Tripathy, Mr. C. Gamage, Mr.C.Y.Liu, Mr.A.J.Kiawu, Mr.B.N. De Los Reyes, Mr.A.R. Soyfoo, Mr.M. Mohamed, Dr.H. Dawood, 董烈模, 金正龍, 趙在衍, 崔洋夫
- 討議主題 :
  - 農村指導事業의 活動범위와 目標
  - 農村指導員의 活動범위와 機能
  - 農村指導 對象
  - 非正規 團體의 役割
  - 農村指導事業의 접근 방법

나. 제 2 그룹

- 討議參席者 : 王仁權
  - Mr. B.B. Sharma Mr. I.R. Kiiru, Mr. D.R. Nunez Dr. S.D. Tendulkar, Mr. J.K. Amoaku, Mr. S.O.L. Amadi-Nna, Mr. A.A. Qader, Mr. C. Pongsroypech, 최문희, 강봉순, 노건길, Mr. R.P.S, Malik

4. 그룹討議 內容

가. 農村指導事業의 活動範圍와 目標

농촌지도사업은 하나의 교육사업이며 諮問活動으로서 특히 지도사업의 對象인 농민들로 하여금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어 농민들의 바람직한 行動變化를 가져 오도록 하는 사업이다. 과학적인 技術과 知識을 통하여 농민들의 태도의 변화, 지식과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회의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농촌지도요원들이 資材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식의 補助的인 機能을 수행하는 者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건의한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의 범주내에서 농민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資材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諮問해 주는 것은 일선 농촌지도요원들의 기능중의 하나인 것은 인정했다. 서비스와 자재공급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볼 때 이러한 일들은 농촌지도사업과 병행하여 농협, 농민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공급해 줌으로써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一線機關에서는 농촌지도사업기관과 관련단체에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급 단위로 농업관련기관이 한곳에

모여 농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농업서비스센타"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나. 農村指導員의 活動範圍와 機能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농업은 각기 국가별로 相異한 發展段階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開發目標와 計劃도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지역 국가들의 농촌지도사업도 일률적인 樣相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이 발전한 국가에 있어서 농촌지도요원은 보다 專門化된 單一 機能을 갖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그러하지 못한 국가에 있어서 농촌지도요원은 多目的 機能을 계속 수행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보다 상위기관의 전문가들은 이들 일선지도원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 주어야 한다. 농촌지도사업의 성격과 지도원의 임무를 생각해 볼 때 농촌지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專門知識과 農村指導方法論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組織力 등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적절한 職務訓練이 주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원들은 자신들의 職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이러한 현상은 拂拭되어야만 한다. 또한 농촌지도원의 근무조건도 그들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부적당하므로 농촌지도요원용 舍宅, 交通手段 保健醫療 및 子女教育手當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회의는 건의했다. 현재의 농촌지도원들의 봉급수준, 승진기회, 전문성함양 등 근무조건은 유능하고 성실한 요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만큼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및 昇進機會賦與 등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제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 農村指導事業의 効果擴散을 위한 메카니즘

현대 기술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기술발전은 개도국의 가장 취약부문인 농업에 부적합하게 資本集約的이고 에너지 중심형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농업과 자원 및 발전단계에 알맞는 適正技術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라. 農村指導對象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스 미디아의 지원하에 실시되는 현장 演示教育, 그룹토의, 個別接觸 등은 기술수용의 頻度를 높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의 貧農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계속된 무관심과 疎外속에서 그들은 농촌지도 기관에 대한 불신,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들로부터 농촌지도기관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信賴回復이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빈농들에게 적합한 적정기술과 적정 지도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들은 가난하므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최신 농업기술을 수용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들의 신속한 보급의 필요성에 따라 농촌지도원들을 위한 각종 訓練教育 過程의 계획과 이들 계획이 강화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農科大學과 硏究機關 그리고 기타 훈련기관의 役割과 責任이 정확히 정의되어져야 하며, 그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부여되어야 한다.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한 부녀자와 청소년 훈련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으며 모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실천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다. 따라서 이들 부녀자들과 청소년들을 가정과 농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 훈련센타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農村靑少年들의 雇傭增大와 所得機會를 마련해 주기 위한 特別訓練計劃이 세워져야 한다고 아울러 건의했다.

마. 非定規團體의 役割

農村地方單位에서 새로운 기술수용을 위한 媒介體로 자신들 스스로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권장되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아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따라서 본 회의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技術傳達을 하기 위한 적절한 農村指導 方法論을 개발

하여 농촌지도원과 이들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느꼈다.

바. 農村指導事業의 接近方法

농촌지도사업을 專門化하여야 하느냐 또는 一般化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국의 農業發展段階와 技術 및 管理方法에 달렸다고 판단된다. 하나 또는 둘 정도의 主作物을 대상으로 專門化된 指導事業을 전개하면서 점차 全體地域으로 확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 農村指導事業의 管理方法

농촌지도사업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開發目標에 관련된 기술의 필요성에서 導出된 농촌개발기술의 관리문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生産性增大, 農民所得增大, 雇傭增大 등을 그들의 기본적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기술은 이 목표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 새로 개발되는 많은 기술들은 農業部門의 농민들만을 위하여 개발되는 印象이며, 非農業部門을 위한 것은 별로 없다. 농업이 우선권을 갖고 계속 성장하여야 하겠지만 모든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본 회의는 개발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농촌사람들의 필요에 不適當하고 그 結果는 不足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1) 住民들이 必要로 하는 技術을 파악하는 制度의 開發이 필요하다.
2) 研究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에 집중되어져야 하며 非農業分野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3) 開發된 기술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농업지대에 따라 技術的 妥當性과 經濟的 適用性 등을 검토하는 광범위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4) 實用性 있는 기술의 광범위한 適用을 위하여 폭넓은 教育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5) 農民들이 最大의 利益을 얻기 위하여 事後 奉仕制度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6) 重要한 技術情報管理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研究機關·指導機關·農民,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連繫性

일반적으로 연구기관과 지도기관 그리고 농민 등 관련기관의 연계성은 취약한 편이며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기관과 농민간의 효과적인 對話窓口가 농촌지도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농민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기관과 대화를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기관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傳播시키는 방법이다. 동시에 농업자재, 유통, 금융 등을 지원하는 관련기관도 함께 농촌지도사업의 협조하에 있어야 한다. 농민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연구사업단독으로 시행된 일들이 이러한 계획이 도입된 이후 수정되는 예를 볼 수 있다. 물론 계획은 부락주민의 수준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의 수준은 농민의 教育水準, 資源利用可能性, 住民의 必要性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일선지역에서 地域單位로 지역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연구기관과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주는 橋梁役割을 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기관들로 하여금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자. 成功的인 農村指導事業 모델

본 회의 참가국으로부터 여러가지 농촌지도사업 모델이 제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두가지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즉 (1) Trickle down model 과 (2) Induced model 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의 일부요인들 즉 組織, 財源, 政府의 役割 등이 성공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느 것이 성공적인 모델이고 어느 요인이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회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비슷한 요인들이 구분되어지고 이

에 대한 심층연구가 수반되지 않는 한 어느 모델이 성공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훌륭한 모델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資源節約效果가 있으므로 앞으로 AARRO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모델 이용결과에 대한 情報를 蒐集하여 관심있는 여러 나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기를 건의했다.

차. 效果的인 農村指導方法 및 公報媒體

본 회의는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문맹률이 낮은 국가에 있어서는 라디오나 T.V 등 公報媒體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大衆傳達媒體 시설이 빈약하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대중전달매체가 효율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는 個別接觸수단이 효과적이다. 그밖에 개별접촉과 대중전달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시험결과를 볼 때 개별접촉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이러한 전달매체수단은 국가마다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느 하나의 전달수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선 농촌지도원의 신속한 移動性과 傳達手段을 갖출 수 있다면 개별접촉의 효과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카. 農村指導訓練

농촌지도원을 잘 훈련시키는 것은 농촌지도사업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훈련의 필요성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급 單位機關에 따라서 파악되어져야 한다. 部落單位 일선지도요원에게는 간단하면서도 실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이고 高位層에서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훈련내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각급단위로 作目別 專門指導員들에게는 細分化된 專門作目訓練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각급단위 일선 농촌지도원들에게 전달기술의 숙달은 중요한 훈련목표가 되어져야 한다.

職務訓練이외에도 각급단위에 있어서 미래에 지도원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訓練要員을 위한 訓練計劃도 중요한 요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훈련분야도 국제협력의 領域이 되고 있다. 전문훈련을 위

한 外國에서의 국제훈련이 마련될 수 있고 農村指導員들의 海外視察은 지도방법론 개선과 함께 그들의 指導事業觀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增進 可能分野

1. 國家間 協力 可能分野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 增進可能性을 檢討하기 위하여 본 회의 참가국들이 필요로 하는 協力分野와 方法 그리고 그들이 供與할 수 있는 協力分野 등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表2는 討議過程에서 導出된 協力 可能分野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表2. 開途國間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協力分野

分 野	細 部 內 容
1. 適正技術의 開發 및 移轉	ㅇ 農業生産技術 (쌀, 양잠, 양계, 사탕수수, 차, 코코아 등의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ㅇ 비닐農業技術 ㅇ 食品加工 및 쌀도정기술 ㅇ 農機具改良 ㅇ 農村에너지 節約(특히 메탄가스) ㅇ 농촌건축자재 생산
2. 土壤保全 및 用水開發	ㅇ 地下水 開發 ㅇ 農地開發(개간) ㅇ 토양유실 방지

分　　野	細　　部　　內　　容
3. 農村小規模 工業開發	○ 농촌가내공업 (식품가공, 생필품 분야)
4. 人力開發	○ 農業技術者, 地方公務員 및 農村指導者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관리능력향상) ○ 교육훈련기법 ○ 전문가의 파견 (농업생산기술 등)
5. 情報, 資料의 交換	○ 農業生產技術 및 適正技術에 대한 硏究 結果의 교환 ○ 國家間 硏究機關과의 協力增大 ○ 전문인력의 교환 ○ 공동연구의 추진
6. 管理 및 計劃 技法	○ 농촌행정조직 및 관리운영 ○ 農村開發事業의 관리법 ○ 農村地域單位의 미시적 계획기법 (농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7. 農村指導 및 農民團體의 組織과 育成	○ 農民指導技法 ○ 農民團體의 조직과 육성기법 (협동조합 등)

國家別로 필요로 하는 協力分野와 供與가능분야를 정리한 것은〈表3〉과 같다.

表3. 아시아·아프리카 開途國別 國際協力 可能分野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아시아 自由中國	1. 行政管理 - 농산물 무역정보관리 - 시험연구정보 관리 2. 教育訓練 - 빈곤층 타개를 위한 훈련	1. 教育分野 - 농지개혁 훈련 - 농촌지도 훈련 - 작부체계 훈련 - 가족계획 훈련 2. 水產業 技術支援 3. 行政管理 - 기술정보 관리기술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4. 農村開發
		- 장기개발계획 기법
		5. 共同研究課題 支援
한 국	1. 情報資料 交換	1. 農業技術
	- 농업관련정보 교환	- 농업경영
		- 수도육종, 재배
	2. 共同研究 支援	- 대두재배
		- 옥수수 육종
		- 과수재배
		- 토양조사 관리
		- 작물보호
		- 축산(가축사양)
		- 조치
		- 잠업
		2. 農業土木, 機械化
		- 농지개량 및 경지정리
		3. 食品加工 및 流通
		4. 農民團體
		- 농협육성(유통포함)
		- 축협 〃
		- 수협 〃
필 리 핀	1. 教育訓練	1. 教育訓練(연구포함)
	- 부녀자훈련(지역개발	- 수도작 분야
	참여방안)	- 수산업분야
	2. 農村開發	- 야자유 생산기술
	- 농촌개발을 위한	- 설탕 생산기술
	· 조직관리	- 산지작물 재배
	· 인력훈련	- 지역개발
	· 평가방법	- 농촌전화
		- 수리관개사업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 지방단위 중소기업 및 소규모 농촌공업개발	
태 국	1. 農業技術	1. 農業技術
	- 잠업개발 기술	- 작물보호기술
	- 코코낫 재배기술	- 수도 및 식량작물기술
	2. 山林技術	- 채소재배 기술
	3. 行政, 技術管理	- 종자기술
	- 농업행정 관리기술	2. 水產技術
	- 유통과 금융관리	3. 農村指導
	4. 農業土木	
	5. 教育訓練	
	- 농촌개발전문가 훈련	
말 레 지 아	1. 農業技術	1. 農業技術
	- 과수재배 기술	- 코코낫 기술
	2. 農村指導	- 고무나무 재배기술
	- 농촌방송기술	- 작물보호 기술
	3. 農民組織	2. 農業土木, 農機械
	- 부녀자 조직운영 기술	- 농지개혁 계획
	- 기타 농민단체조직 운영 기술	3. 教育訓練
		- 농촌지도 훈련
	4. 教育訓練	4. 農村開發
	- 교관요원을 위한 훈련기술	- 농촌종합개발계획 기법
인 도	1. 適正技發開發	1. 農業技術
	2. 에너지節約 技術	- 낙농
	3. 에너지再生技術	- 수의
		2. 水產技術
		- 악어사육
		3. 農村指導
		4. 農民組織
		- 농협조직운영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5. 教育訓練 - 중장기교육훈련계획 수립 - 매스커뮤니케이션훈련 6. 行政技術 管理 - 농업행정관리 7. 農村開發 - 농촌개발 - 농촌공업개발 8. 共同硏究 - 자원관리
스리랑카	1. 教育訓練 - 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방법론	
요르단	1. 農業土木, 機械化 - 농지개발 계획 - 관 기술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1. 農業技術 - 설탕생산 및 가공기술 - 비닐하우스 재배기술 - 종자기술 - 양계사육 기술 2. 農業土木, 機械化 - 수리관개 기술 - 유역개발 3. 食品加工 - 미곡가공 기술	1. 農業技術 - 수의학기술 - 조림기술 2. 教育訓練 - 농촌개발에 관한 초중급 관리자 훈련
가 나	1. 農村指導 2. 農村開發	1. 農業技術 - 코코넛 야자생산기술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 지역단위 세부종합개발 계획 수립기법 - 가내공업 및 농촌공업 기술	
	3. 農業土木 機械化 - 주택개량자재생산(타일, 벽돌 등)	
	4. 適正技術 開發	
케 냐	1. 農業技術 - 야자재배기술 - 종자생산기술 - 건조지 영농기술 - 잠업기술	1. 農業技術 - 커피재배기술 - 차 생산기술 - 낙농기술
	2. 農業土木, 機械化 - 소농기구 개량기술 - 에너지절약 기술	2. 食品加工 - 커피품질 관리
	3. 行政技術 管理 - 유통관리 - 연구관리	3. 教育訓練 - 농촌지도 중간관리자 훈련
	4. 農村開發 - 농촌공업개발 - 부녀자 소득개발	4. 農民組織 - 농업협동조합 육성
	5. 人力開發	
사에라레온	1. 農業技術 - 야자재배기술 - 코코낫 재배 기술 - 농업경영 기술	1. 農業技術 - 수도재배 기술
	2. 食品加工 - 설탕제조 기술	
	3. 農業土木 機械化 - 단순농기구 개발 - 농지 및 수리개발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4. 教育訓練 - 작목별 전문훈련 5. 農村開發 - 농업관련 공업개발	
에 짚 트	1. 教育訓練 2. 農業部門 硏究 3. 情報 및 人力交換	1. 教育訓練 - 농업기술 - 농업연구 - 농촌지도 - 토목기술
라이베리아	1. 農業土木 機械化 - 농업기계 2. 農民組織 - 농협육성 3. 農村指導 4. 適正技術 開發	1. 農業技術 - 시험연구 기술 2. 農村開發
모 로 코	1. 農業技術 - 수도작 - 사탕수수 - 차(茶) - 전작물 재배 2. 農業土木, 機械化 - 지하수 탐사기술 - 토양 침식방지 기술 3. 農民團體 育成 4. 農村指導	1. 農業技術 - 오렌지류 재배기술 - 축산업 기술 - 산림기술 - 비닐하우스 기술 2. 水産業技術
모 리 셔 스	1. 農業技術 - 잠업기술 - 담배재배 기술 - 차(茶)재배 기술 - 양파, 마늘 등 재배기술	1. 農業技術 - 설탕 재배 기술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2. 農業土木, 機械化 - 메탄가스 기술 3. 農村開發 - 소규모 가내공업 - 농업관련공업 개발 4. 教育訓練 - 농촌개발 전문가훈련	

2. 韓國에 協力을 要請하는 分野

이번 회의에서 얻은 성과 중의 하나로 아시아·아프리카 開途國들이 한국에 요청하는 經濟 및 技術協力 分野를 파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바라고 있는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協力分野는 (1) 農業技術開發 (2) 農村開發 및 行政, (3) 農村小規模工業開發 (4) 農民團體의 組織과 育成 (5) 農村經濟組織의 5개분야로 집약되고 있다.

〈表 4〉는 아시아·아프리카 開途國들이 우리 나라에 요청하는 協力分野를 정리한 것이다.

表 4. 아시아·아프리카 開途國이 바라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農業/農村 協力分野

協 力 分 野	協 力 方 式
1. 農業技術開發 - 작물재배 (쌀, 잠업 원예작물 등) - 토지 및 용수개발	○ 우리 나라의 전문가 개도국 파견 (연구전문가 또는 교수 등) ○ 개도국 전문가의 한국내 훈련 (한

協 力 分 野	協 力 方 式
- 농기계 개량 2. 農村小規模工業 開發 - 식품가공(특히 쌀도정 등) 3. 農村開發 및 行政 - 農村開發事業 樹立 및 評價 - 農村計劃技法 - 農村下部構造 및 環境開發(농촌도로, 농촌의료, 가족계획 등) - 農村指導 및 農民教育 - 農村새마을 運動 - 農村指導者 教育 4. 農民團體組織 育成 - 協同組合育成 5. 農村經濟 組織 - 農產物市場組織 - 農村金融制度	국의 대학원과정 또는 관계 연구기관에서의 연수) o 개도국 지도자에 대한 단위 연수 방문 o 개도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o 물자지원(연구, 교육훈련, 농촌지도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지원)

본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아프리카 開途國들이 바라는 對韓 協力要請 내용을 국가별, 細分野別로 정리하면 〈表5〉와 같다.

表5. 對韓國 協力要請內容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아 시 아		
태 국	1. 農業技術	o 잠업기술 - 연수생 파견
	2. 農業土木, 機械化	o 농업토목 - 전문가 파견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 연수생 파견
	3. 行政管理	○ 농업행정관리
		- 연수생 파견
		○ 유통 및 금융관리
		- 연수생 파견
		- 전문가 시찰·교환
	4. 教育訓練	○ 새마을운동 연수
		- 연수생 파견
		○ 농민지도자 연수
		- 연수생 파견
인 도	1. 行政管理	○ 행정 및 재정관리
		- 전문인력 교환
	2. 農村開發	○ 미시적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기법
		- 기술교환
		- 인력교환
	3. 教育訓練	○ 지역지도자 훈련
		- 전문가 교환
스 리 랑 카	1. 教育訓練	○ 공무원 민간지도자의 정신교육
		- 훈련요원의 상호교환
아프리카		
모 로 코	1. 農業技術	○ 전작물 재배
		- 재정적 원조
		○ 수도재배
		- 기술원조
		- 연구결과 교환
	2. 農業土木 機械化	○ 농업수리관개
		- 재정적원조
	3. 農村指導	○ 지도요원교환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 훈련생 파견
	4. 教育訓練	ㅇ 농민지도자 훈련
		- 훈련생 파견
	5. 農村工業	ㅇ 농촌소규모 공업개발
		- 재정적 원조
		- 기술원조
	6. 農村開發	ㅇ 농촌하부구조 개선
		- 재정적원조
		- 기술원조
나이제리아	1. 農業技術	ㅇ 비닐하우스 재배기술
		- 전문가 파견연수
	2. 農業土木, 機械化	ㅇ 단순농기구 개발
		- 전문가 파견 연수
		ㅇ 지하수 개발
		- 전문가 파견연수
	3. 食品加工	ㅇ 미곡가공 기술
		- 전문가 파견 연수
	4. 農民組織	ㅇ 농협조직 개발
		- 전문가 파견 연수
	5. 農村開發	ㅇ 개발계획기법 연수
		- 전문가 파견
		ㅇ 농촌개발을 위한 정신교육
		- 훈련생 파견
라이베리아	1. 農業 土木, 機械化	ㅇ 농업기계화 지원
	2. 農民組織	ㅇ 농협조직 개발지원
		- 농협을 통한 유통
	3. 行政管理	ㅇ 지방행정관리 기법
		- 전문가 훈련
	4. 農村開發	ㅇ 지역개발
		ㅇ 농촌종합개발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 도로, 보건, 교육, 가족 계획 기법훈련
	5. 農村工業	○ 농촌공업개발
		- 인력훈련, 개발
케 냐	1. 農村技術	○ 잠업기술
		- 전문가 파견훈련
		- 기술이전
	2. 農業 土木	○ 농지개발
		- 토목기술자 연수교육(석사과정)
		- 기술이전
	3. 行政管理	○ 연구관리 방법
		- 전문가 교환
	4. 教育訓練	○ 농업시찰단 파견
		- 대학교수, 농업관련단체, 지도자, 농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파견 연수
모 리 셔 스	1. 農業 土木, 機械化	○ 농업관계 사업
		- 기술이전
	2. 農村指導	○ 지도공무원 연수
		- 연수생 파견
	3. 農村工業	○ 농촌공업 개발
		- 전문가파견 연수
가 나	1. 農業開發	○ 옥수수, 수도재배
		- 기술지원
		- 재정적 지원
	2. 農民組織	○ 농협조직 육성
		- 농협을 통한 농산물유통 기술 연수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3. 農村開發	○ 지역단위 미세종합개발 수립 기법 - 인력훈련 - 기술지원 - 재정지원
시에라레온	1. 農業 土木, 機械化	○ 경지정리 및 농지개발 - 타당성 조사 - 재정지원 - 기술지원 ○ 용수개발과 관개사업 전력개발사업 - 타당성 조사 - 재정지원 - 기술지원
	2. 教育訓練	○ 농업토목, 농업경제, 농촌지도 농학분야 - 훈련시설 제공 - 전문가파견 자문 - 전문인력 연수를 위한 장학금 지급 ○ 새마을운동 - 훈련연수 참여

建　　議

1. 아시아·아프리카 農業 및 農村開發政策의 體系的인 研究體制 構築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資源의 획득과 한국상품의 市場開拓이라는 分業主義的 경제협력에서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및 非同盟國家들과의 外交强化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이 우리의 國益에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국가들에 대한 농업 및농촌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 農業國家이고 絶對貧困과 기아에서의 해방이 이들 국가가 당면한 政策課題임에 비추어 볼 때 農業과 農村開發을 통한 經濟 및 技術協力은 어느 분야 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하고 설득력 있는 협력분야이다. 발전단계에 따른 적정기술의 이전과 적용에 관한 교육훈련, 각종 경제사회개발계획 특히 미세한 地域單位 農村綜合開發計劃의 수립기법 및 이의 실천에 관한 經驗 등은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도 긴급한 협력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농업과 농촌의 構造的인 문제들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체계있는 연구는 곧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제3세계에 대한 非同盟外交를 强化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국가들의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무역정책, 역사와 문화, 경제사회구조, 산업기술개발 등과 이들 지역국가에 대한 移轉可能한 기술 정보수집 등 폭 넓고 체계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1)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農業과 農村開發政策을 體系的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관계 연구기관의 硏究領域을 擴充시켜야 하고 2)이를 위한 硏究費의 投資등이 뒤 따라야 한다.

2. 專門人力 育成 및 專門家 諮問活動 支援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과들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나아가기 위하여는 分野別 專門人力은 물론 國家 및 地域別로 專門人力을 養成하여 분야별/지역별로 專門性을 함양하여야 한다. 또한 점증하는 전문가 파견 요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職務能力의 향상 뿐만 아니라 語學能力, 자문활동에 필요한 資質向上을 위한 특별 훈련을 시켜 대외 자문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1) 국가간의 전문인력 교환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별·지역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 국제기구 및 제3국의 개발도상국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 기관과의 개도국지원 활동 프로그램에의 공동참여 방안 강구 3) 전문인력에 대한 語學 훈련강화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전문가의 해외자문 활동의 강화는 그 동안 인력정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농업 및 농업경제분야의 인력수급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이고, 국제적 자문활동의 경험과 여기에서 축적된 기술은 중요한 개발자원으로 한국농업발전을 위하여 재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

3. 農水産 관련 海外訓練生의 敎育專擔機構의 設置

본 회의에서 한국에 요청한 국제협력분야 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專門家 派遣訓練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適正技術 移轉과 관련하여 이 분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분야 교육 훈련사업은 農水產部를 비롯하여 農村振興廳, 農業振興公社, 水產廳, 農協, 畜協, 韓國農村經濟硏究院, 새마을運動中央本部 등에서 散發的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 훈련과정도 상설과정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결정되는 訓練課程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韓國의 役割增大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농수산분야의 국제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수행할 常設教育機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자유중국의 토지개혁훈련소, 에짚트의 Egyptian 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e 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4. 國際協力強化를 위한 行政力 補強

농촌 및 농촌개발분야의 국제협력이 急增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수산분야 國際協力을 담당하는 行政力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농수산분야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농수산부의 경우를 보면 1981년 11월 직제개편으로 무역과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국제협력과로 통폐합하여 1) 농수산관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업무의 종합조정 2) 외국차관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의 유치와 기술용역단 및 조사단의 파견 3) 농수산관계 외국 시찰단 초청 안내 및 훈련 4) 농수산물 수출입계획의 조정 및 수출지원 계획 수립 5) 지정수출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 규제 및 해외시장 조사 6) 수출입 관계법규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농업에 관한 관세제도의 조사연구 및 조정 등을 담당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업무를 課단위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급증하는 국제무역 및 경제협력 업무에 비하여 볼 때 國際情報蒐集, 研究分析등 깊이 있는 行政力의 機能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협력과를 농수산물 무역, 경제협력, 기술협력 등의 전문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농수산 관련 국제협력의 종합적인 단일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機能의 專門化와 人力補强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5. 國際協力基金 造成을 위한 民官協力體制 構成

急增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예산을 정부 財政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國際貿易과 경제협력분야에서 관심있는 經濟團體 및 企業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政府 및 全國經濟人聯合會, 貿易協會, 農業團體 그리고 일반 企業體등의 基金出捐으로 가칭「아시아·아프리카 農業／農村開發協力基金」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附錄 1

開 會 辭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尊敬하는 朴鍾汶 農水產部長官兼 AARRO 議長, 본회에 참석하여 주신 각국의 代表,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開發途上國間의 農村開發協力을 위한 국제회의 開會를 선언하게 되었음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을 대신하여 국내외에서 참석하여 주신 고명하신 학자와 고위관료 여러분의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본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에 대하여도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늘의 모임을 갖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는, 開發途上國의 農村과 農業開發을 위한 효과적인 經濟 및 技術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적 對話의 窓口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며, 두번째로는 제 3 世界의 발전을 위하여는 개발도상국간에 가능한 한 많은 實踐經驗들을 相互交換하고 나누어 갖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見解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대다수 국민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상당부분이 絶對貧困과 低開發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不確實하고 不安定한 상황속에서 이러한 고질적인 가난의 굴레를 벗겨 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긴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회의는 농촌개발을 위한 農村指導

事業 모델과 農村開發協力을 위한 開發途上國들간의 협력분야와 효과적인 協力方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본 회의의 개최 의의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농촌주민들의 삶을 質적으로 向上시키고 생활여건의 改善에 기이하는 데 있읍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개발도상국간의 국내외 상황에 관한 폭 넓은 相互理解의 바탕위에 협력을 위한 共感帶 形成이 그 첫걸음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이 국제회의가 농촌의 저개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위한 하나의 礎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이 회의가 成功的 結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祝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회의가 단순히 농촌지도사업과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 살고 있는 수십억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합 니 다.

附錄 2

歡 迎 辭

Mr.R.P.S.Malik
Technical Officer, AARRO
(AARRO 事務總長을 대신하여)

尊敬하는 朴鍾汶 農水產部長官, 귀빈, 참석자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 사무총장 Dr.B.S.Minhas를 대신하여 大韓民國 農水產部 후원하에, 韓國農村經濟硏究院과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가 공동주관하는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에 환영사를 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인도의 델리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시술을 받아 온 事務總長은 본 회의 개회식에 꼭 참석하고자 하였지만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로 본 개회식에 참석하여 歡迎辭를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3～4일 후에는 사무총장이 본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인은 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AARRO)와 본 회의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朴鍾汶 農水產部長官이 議長으로 되어 있는 AARRO는 지난 22년간 활동하여 왔으며, 아시아 16개국, 아프리카에 12개국 총 28개국을 會員國으로 하고 있읍니다. AARRO는 일찌기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 설립된 農村開發을 위한 南南協力의 한 標本입니다. AARRO의 주요 機能은 회원국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호 理解를 增進시키고, 農村住民의 貧困, 질병, 기아, 문맹 등을 일소하며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共同의 努力을 기하는데 있읍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ARRO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 농촌빈곤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AARRO의 極東地域 事務所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음은 AARRO의 자랑이며 영광이기도 합니다.

본 회의는 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그 하나는 農村指導事業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開發途上國의 農村開發協力을 위한 國際協力입니다. 본 회의에 두 개의 주제를 포함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사이에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模型을 개발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討論의 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 농촌/농업개발협력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AARRO가 국제기구나 각국의 국내 기관들과 공동노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사무총장이 본 회의의 성공에 거는 期待가 우리들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事務總長은 朴鍾汶 農水產部長官兼 AARRO議長께서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祝賀하여 주시고 指導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읍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大韓民國政府 특히 外務部에 감사를 드렸고 韓國農村經濟硏究院의 金甫炫 院長님, AARRO의 극동지역 사무소 李熹逸대표, AARRO의 국내조직위원회 위원장 崔洋夫 박사, 그리고 본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렸읍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본 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主催측에게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무총장과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附錄 3

祝　　辭

農水產部長官 겸 AARRO 議長
朴　鍾　汶

尊敬하는 大使님, 본 회의 참석하여 주신 각국의 참석자 여러분,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大韓民國의 國民과 政府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를 대신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회의의 成功的 開催를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하여 주신 AARRO의 Dr. B.S. Minhas 事務總長과 韓國農村經濟硏究院 金甫炫 院長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본 서울 워크샵의 주제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농촌과 농업개발에 필요한 協力分野와 효과적인 協力方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개발을 위하여 농민들과의 대화와 농업기술 전파를 위한 모델에 관한 實務經驗을 交換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회의가 농촌빈곤과 저개발이라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AARRO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비슷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福祉農村을 건설하려는 理想을 품고 설립되었읍니다.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國民經濟 역시 1次産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농촌과 농업개발이 國家開發目標의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農業開發이 都市開發보다 뒤처져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共通된 現實이며, 농촌저개발은 농촌주민의 離農을 促進시켜 都市問題를 유발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이 均衡的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농촌주민의 삶의 質的 向上과 생활의 便益性 增進을 위한 종합적인 努力이 필요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아래 본인은 韓國이 經驗한 몇가지 事例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계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결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업부문에 비하여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더 나은 就業機會와 生活環境을 찾아 도시를 향하여 농촌을 떠나는 離農問題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읍니다. 自助, 自立, 協同의 정신으로 더 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농촌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接近方法으로 評價되어 왔읍니다.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농촌새마을운동은 精神的, 物理的으로 農村社會發展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러한 농촌새마을운동이 외국 전문가들에 의하여 "韓國型 農村開發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濃密한 연구와 농촌지도사업 특히, 多收穫 벼 新品種의 성공적 育成과 普及으로 農家所得은 상당수준으로 향상 되었읍니다.

한국의 농촌에 고질적인 빈곤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소득의 均等分配,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의 均衡된 生活環境造成 등에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全斗煥大統領 각하의 領導力 아래 先進祖國 창조를 향하여 추진되고 있읍니다.

참석자 여러분!

본인은 농촌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본회의 과정에서 導出되고 相互協力 精神아래 문제해결을 위한 一步의 前進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또한 본인은 본 회의에서 논의되고 제안될 건의안들이 진정한 농촌개발목표로 여러분들의 본국 정부에서 채택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貧困과 飢餓를 인류로부터 추방하여야 한다는 大

命題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한국방문을 歡迎하고 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祝賀합니다. 아무쪼록 체한기간동안 이 나라의 많은 분야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附錄 4

會 議 日 程

10월 11일(화) : 외국참석자 도착 및 등록

10월 12일(수) :

10 : 30 ~ 11 : 40 개 회 식

- 사 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崔 洋 夫 首席研究員
- 개회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金 甫 炫 院長
- 환영사 :
- 축 사 : 농수산부장관겸 AARRO의장
  朴 種 汶 長官

12 : 00 ~ 13 : 00 오 찬(농수산부장관 주재)

14 : 00 ~ 15 : 20 Session Ⅰ

주제 Ⅰ(농촌지도사업 모델)에 관한 초청논문 발표 및 토의

사 회 : 요르단(Mr.A Qader)

발표자 : 王 仁 槿 博士(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Dr. K.N. Singh (인도 농업연구위원회 명예위원)

15 : 20 ~ 15 : 40 휴 식

15 : 40 ~ 17 : 00 Session Ⅱ

주제 Ⅰ에 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시에라레온(Mr.L.M.Feika)

발표자 : 자유중국 (Mr. Ching Yung Liu)
인 도 (Mr. B.B.Sharma)
태 국 (Mr. C.Pongsroypech)

10월 13일 (목)

09 : 00 ~ 10 : 20 Session Ⅲ
주제 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자 유 중 국 (Mr. Ching Yung Liu)
발표자 : 라이베리아 (Mr. A. J. Kiawu)
가 나 (Mr. J.K. Amoaku)
케 냐 (Mr. I.R. Kiiru)

10 : 20 ~ 10 : 40 휴 식

10 : 40 ~ 12 : 00 Session Ⅳ
주제 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가 나 (Mr. J.K. Amoaku)
발표자 : 모 리 셔 스 (Mr. A.R. Soyfoo)
한 국 (동 열 모)
필 리 핀 (Mr. D.R. Nunez)

12 : 00 ~ 13 : 30 중 식

13 : 30 ~ 14 : 50 Session V
주제 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필 리 핀 (Dr. D.R. Nunez)
발표자 : 시에라레온 (Mr. L.M. Feika)
모 로 코 (Mr. M. Mohamed)

14 : 50 ~ 15 : 10 휴 식

15 : 10 ~ 17 : 00 Session Ⅵ
주제 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케 냐 (Mr. I.R. Kiiru)

발표자 : 스 리 랑 카 (Mr. C.Gamage)
나이제리아 (Mr. S.O.L.Amadi Nna)
에 짚 트 (Mr. H.Dawood)
말 레 지 아 (Mr. A.R.Mohd Nor)
요 르 단 (Mr. A.A.Qader)

17 : 00 ~ 17 : 30 그룹토의를 위한 토의주제 설정
18 : 30 ~ 21 : 00 만 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주재)
21 : 00 ~ 주제 I 에 관한 토의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 회의

10 월 14 일 (금)

09 :00 ~ 10 : 30 그룹토의 (그룹 I , 그룹 II)
10 :30 ~ 11 : 00 휴 식
11 :00 ~ 12 : 00 그룹토의 계속
12 :00 ~ 14 : 00 중 식
14 :00 ~ 15 : 00 워커힐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15 :00 ~ 16 : 00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16 :00 ~ 17 : 00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 :00 ~ 17 :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방문
17 :30 ~ 18 : 30 가든파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주재)

10 월 15 일 (토)

08 : 30 ~ 워커힐 - 농업진흥공사
09 : 30 ~ 10 : 30 농업진흥공사 방문
10 : 30 ~ 11 : 00 농업진흥공사 - 농촌진흥청
11 : 00 ~ 12 : 30 농촌진흥청 방문
12 : 30 ~ 14 : 00 중 식 (농촌진흥청장 주재)
14 : 00 ~ 15 : 00 농촌진흥청 - 새마을부락
15 : 00 ~ 18 : 00 새마을부락 방문 (송탄시 도원동 칠원마을)
18 : 30 ~ 21 : 00 만 찬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 주재)

10월 16일(일)

09:00 ~ 10:00 워커힐 - 민속촌

10:00 ~ 14:00 민속촌 방문

14:00 ~ 15:00 민속촌 - 서울

15:00 ~ 자유시간

10월 17일(일)

09:00 ~ 10:20 Session Ⅶ

주제Ⅱ(농촌개발을 위한 개도국간의 국제협력)에 관한 초청논문 발표 및 토의

사 회 : 모로코(Mr. M. Mohamed)

발표자 : 金東熙 博士(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S.D.Tendulkar (인도 델리대학 교수)

10:20 ~ 10:40 휴 식

10:40 ~ 12:00 Session Ⅷ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나이제리아(Mr. S.O.L Amadi Nna)

발표자 : 자 유 중국(Mr. Ching Yung Liu)

필 리 핀(Mr. D.R.Nunez)

말 레 지 아(Mr. A.R.Mohd Nor)

12:00 ~ 13:30 중 식

13:30 ~ 14:50 Session Ⅸ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태 국(Mr. C.Pongsroypech)

발표자 : 시에라레온(Mr. L.M. Feika)

가 나(Mr. J.K. Amoaku)

케 냐(Mr. I.R. Kiiru)

14:50 ~ 15:10 휴 식

15 : 10 ~ 17 : 00 Session X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에 집 트(Dr.H.Dawood)

발표자 : 인 도(Mr.B.B.Sharma)

한 국(김 정 용)

태 국(Mr.C.Pongsroypech)

18 : 30 ~ 시내관광

10월 18일(화)

09 : 00 ~ 10 : 20 Session XI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말 레 지 아(Mr. A.R.Mohd Nor)

발표자 : 스 리 랑 카(Mr. C.Gamage)

라이베리아(Mr. A.J.Kiawu)

모 로 코(Mr. M.Mohamed)

에 집 트(Dr. H.Dawood)

10 : 20 ~ 10 : 40 휴 식

10 : 40 ~ 12 : 00 Session XII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한 국(최 문 희)

발표자 : 나이제리아(Mr.S.O.L.Amadi Nna)

모 리 셔 스(Mr.A.R.Soyfoo)

요 르 단(Mr.A.A.Qader)

12 : 00 ~ 13 : 00 중 식

13 : 30 ~ 15 : 00 Session XIII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간에 필요한 국제협력 분야 및 협력형태 파악

사 회 : 인 도(Dr.R.N.Tripathy)

15 : 00 ~ 15 : 30	휴　　식
15 : 30 ~ 16 : 30	주제Ⅱ에 관한 구룹토의 주제설정
16 : 30 ~ 18 : 30	Session XIV 주제Ⅰ에 대한 그룹토의결과 발표 사　회 : 스리랑카 (Mr.C.Gamage)
19 : 30 ~ 22 : 00	만　　찬 (AARRO극동지역사무소 대표 주재)
22 : 00 ~	주제Ⅱ에 관한 토의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 회의

10월 19일 (수)

09 : 00 ~ 10 : 30	그룹토의 (그룹Ⅲ, 그룹Ⅳ)
10 : 30 ~ 11 : 00	휴　　식
11 : 00 ~ 12 : 00	그룹토의 (계　속)
12 : 00 ~ 19 : 00	자유시간
19 : 00 ~ 21 : 00	만　　찬 (AARRO 사무총장 주재)

10월 20일 (목)

09 : 00 ~ 10 : 30	Session XV 주제Ⅱ에 대한 그룹토의결과 발표 사　회 : 모리셔스 (Mr.A.R.Soyfoo)
10 : 30 ~ 14 : 00	휴　　식
14 : 00 ~ 15 : 30	Session XVI 회의결과 및 건의문 채택 사　회 : 라이베리아 (Mr.A.J.Kiawu)
15 : 30 ~ 16 : 00	휴　　식

16 : 00 ~ 17 : 00　　폐 회 식

- 폐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영 진 부원장
AARRO 사무총장
Dr. B. S. Minhas

10월 21일(금) : 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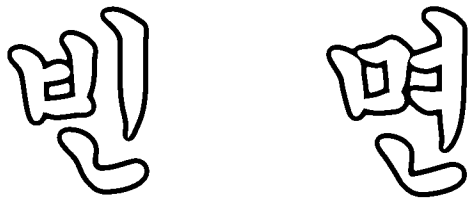
附錄 5

參加國 및 參加者

참 가 국	참 가 자	소 속	직 위
1. 국별사례발표자			
아시아			
한 국	金 正 龍	농수산부	국제협력과장
	董 烈 模	농촌진흥청 영양개선연수원	훈련과장
자유중국	Mr. Ching-Yung Liu	행정원 농업발전위원회	선임전문가 겸 대만대학교수
필 리 핀	Mr. D.R.Nunez	내무성 지방행정발전국	국장
말레지아	Mr. A.R.Mohd. Nor.	농업성	훈련과장
태 국	Mr. C.Pongs-roypech	농업성 농촌지도국	국제협력담당관
인 도	Mr. B.B. Sharma	농촌개발성	국장
스리랑카	Mr. C.Gamage	내무성	차관
요 르 단	Mr. A.A.Qader	프린세스 라만개발센타	부소장
아프리카 (8개국)			
에 집 트	Dr.H. Dawood	에집트 국제농업센타	농촌종합개발계획담당
가 나	Mr. J.K. Amoaku	농촌개발성	차관
나이제리아	Mr. S.O.L. Amadi-Nna	농업성	과장
케 냐	Mr. I.R.Kiiru	농림축산개발성	농업과장

참 가 국	참 가 자	소 속	직 위
라이베리아	Mr. A.J.Kiawu	내무성	선임연구원
모 로 코	Mr. M.Mohamed	농업 및 농지개혁성 협동조합관리부	부 장
모리셔스	Mr. A.R. Soyfoo	경제개발계획성 농촌개발부	부락개발담당관
시에라레온	Mr. L.M. Feika	농림성	과 장
2. 토론참석자			
한 국	姜 奉 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崔 文 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연구원
	趙 在 衍	농촌진흥청	열대농업관
	金 聖 洙	서울대학교농과대학	교 수
	盧 健 吉	농업진흥공사 해외부	기 사
인 도	Dr. R.N. Tripathy	인도 농촌개발연구소	소 장
3. 초청강사			
한 국	金 東 熙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교 수
	王 仁 權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 수
인 도	Dr. K.N. Singh	인도농업연구위원회 농촌지도부	명예위원
	Dr. S.D. Tendulkar	인도 델리대학교 경제학부	교 수
4. 옵 저 버			
FAO	Mr. B.N. Reyes	FAO 아시아 태평양지역사무소	농업경영담당관
AARRO	오 완 수	AARRO 극동지역사무소	행정관

참 가 국	참 가 자	소 속	직 위
5 . AARRO			
	Mr . B.S.Minhas	AARRO	사무총장
	Mr . R.P.S. Malik	〃	기술담당관
	Mr . B.K.Malhotra	〃	사무총장비서관
6 . KREI			
	金 甫 炫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장
	金 榮 鎭	〃	부원장
	崔 洋 夫	〃	수석연구원
	李 壽 寧	〃	연구기획실장
	琴 東 君	〃	책임연구원
	鄭 起 煥	〃	3 급관리원



開發途上國間의
農村·農業開發 協力方案

1983年 12月 日 發行

發行處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登 錄 : 1979年 5月 25日 第5 - 10호

印刷處 : 株式會社 文 苑 社
723 - 6068, 722 - 6053